메머드급 '학생연합' 출범…2000여 불자 구성

동국대, '불교학생연합' 발족 기념법회 봉행

15개 단과대, 대학원 동아리 연합
국내 최대 규모 학생신행연합체
9월 예정 '영캠프' 기획 등 주도
돈관 스님 "팔정도 실천을" 법문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2000여 대학생 불자들이 참여하는 메머드급 학생신행연합체가 출범했다.

동국대(총장 윤재웅)는 6월 26일 교내 정각원에서 '불교학생연합 발족 기념 6월 동국인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불교학생연합'은 동국대 불교학생회 '동불'과 창립을 완료한 14개 단과대학 및 일반대학원 불교동아리, 유학생회 등으로 구성된 신행연합조직으로 단일 대학에서는 최대 규모의 '학생신행연합조직'이 될 전망이다. 이들 학생연합은 오는 9월 24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리는 '불교문화축전' 기획과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날 법회에서 류용현 일반대학원 불교동아리 동국청년불자회장은 불교학생연합의 발족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류용현 회장은 "현재 2031명의 학생들로 구성된 불교학생연합은 연등행렬, 템플스테이, 자체 법회 및 각종 문화 법회 등 다양한 불교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불교학생연합은 단순한 학생모임을 넘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지지하며 함께 성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5월 29일 영캠프 기획위원으로 위촉돼 오는 9월 24일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만들어나가는 청년불자들의 축제의 장인 영캠프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영캠프를 통해 불교학생연합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국대는 6월 26일 교내 정각원에서 '불교학생연합 발족 기념 6월 동국인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법회 직후 기념촬영 모습.

가장 처음 창립된 사회과학대학 불교동아리 '템플애플'의 문정민 회장은 학생들을 대표해 이사장 돈관 스님에게 감사편지를 낭독했다. 문정민 회장은 "불교학생연합 발족이라는 큰 결실을 맺게 돼 매우 기쁘며 이 뜻 깊은 시작에는 이사장 돈관 스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손수 만들어 주신 장학금 덕분"이라며 "스님의 이러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이 없었다면, 오늘의 이 자리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어 "각각의 단과대학에서 시작한 작은 날갯짓은 어느덧 오늘 불교학생연합발족이라는 커다란 마음으로 모여 학생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됐다"며 "이사장스님께서 학생들에게 보여주신 관심과 지원은 큰 힘이 되었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에 있어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회에서 이사장 돈관 스님은 법문을 통해 '팔정도'를 실천할 것을 강조했다. '개경게'를 독송한 돈관 스님은 "1겁은 가로세로 40리의 큰 바위에 스님의 장삼 자락이 스쳐서 그 바위가 전부 닳아 없어지는 시간이다. 부처님 법은 1000만겁이 지나도 만나기 어렵다고 했다"면서 "부처님이 설하신 보편타당한 진리를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만나고 있는 여러분은 귀한 인연임을 알아야 한다"고 설했다. 그러면서 "동국대의 로고 등은 모두 '팔정도'를 형상화하고 있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본이 되기 때문"이라며 "팔정도의 여덟 가지 가르침은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일체화하고 있다. 꼭 불자라면 실천해야 하는 윤리규범이기도 하다"고 실천을 당부했다.

앞서 윤재웅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14개 단과대학 및 일반대학원 불교동아리 창립하며 보여준 어마어마한 속도전과 변화로 전국 방방곡곡의 사찰과 불자들이 동국대를 주시하고 있다"며 "여러분들이 동국 발전과 불교 중흥의 중요한 풀뿌리라고 생각하고 잘 전법하여 훌륭한 나무로 성장한 불교 인재들이 숲을 이뤄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회에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을 비롯해 윤재웅 총장, 정각원장 제정 스님, 박기련 건학위원회 사무총장, 지정학 법인 사무처장과 14개 단과대학 및 일반대학원 불교동아리 지도법사, 지도교수, 임원진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28대 중앙신도회장에 정원주 회장 만장일치 추대

임기는 10월 1일부터 4년간
소통강화 · 체계 정비 등 공약

조계종 제28대 중앙신도회장에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사진〉이 선출됐다.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은 6월 2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중앙신도회 제27-5차 대의원총회에서 제28대 중앙신도회장으로 만장일치 추대됐다. 정 회장의 임기는 올해 10월 1일부터 2028년 9월 30일까지, 4년이다.



정원주 제28대 중앙신도회장은 "지금까지 오직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 사업하고 사회 활동하면서 세상으로부터 받은 혜택과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다"며 "오직 종단과 신도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한국불교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불자들의 땀과 열정이 헛되지 않게 역할을 잘 해내겠다"며 "지혜가 필요한 일에는 꼭 종단과 선배 법우들의 조언과 소통을 거쳐 긍정적인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정 회장은 내년 창립 70주년을 맞는 중앙신도회의 정책공약으로 △종단 외호를 위한 종단과 소통강화 및 체계 정비 △선명상 대중화 등 포교역량 강화를 위한 신도회 역할 재정립 △조계종도로서의 자긍심과 소속감 확립 △불교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통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내걸었다.

이에 앞서 주윤식 제27대 중앙신도회장은 "오늘은 중앙신도회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중요한 자리"라며 "미흡한 정책은 보완하고, 정비해 신도회가 더 발전하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대의원총회에서는 신임 회계감사로 남창현 한국세무사불자회장을, 업무감사로 이상훈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을 각각 선출했다. 김내영 기자

'더 좋은 동국' 향한 마음, 211억 원 모았다

동국대, 6월 21일 후원의 밤 개최

'더 좋은 동국,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절실한 발원에 감응한 마음들이 하나로 모였다. 동국대(총장 윤재웅)는 6월 21일 서울 신라호텔 다이제스티홀에서 후원의 밤을 개최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치사를 통해 동국대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스님은 "동국 발전이 불교중흥이요, 불교중흥이 곧 동국발전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절인연이 닿은 좋은 기회, 법인과 학교의 모든 구성원, 그리고 총동창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화합해 학교 발전에 더욱 정진해달라"고 주문했다.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식사에서 동국발전 불사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스님은 "1906년 개교 이래 후원자들의 자비의 원력들은 오늘의 동국대를 만든 가장 큰 원동력"이라며 "이러한 원력과 실천들이 고스란히 전해져 단과대학 불교동아리가 자발적으로 창립되고 있으며, 회원 수가 현재 서울캠퍼스는 2500명이 넘어섰고, WISE캠퍼스는 1000명에 달한다. 불교적 가치관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는 데 큰 힘을 주는 것은 후원자들의 한결 같은 공덕"이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종단. 학교법인, 대학, 동문 그리고 후원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모은다면 우리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내일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더 좋은 동국을 응원해주시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6월 21일 열린 동국대 후원의 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사진 왼쪽)과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가 기부 약정서를 작성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부약정서를 작성하며 후원에 동참했다. 앞서 각계각층의 사전 후원도 이어졌다.

한편, 이날 후원의 밤을 통해 약 211억 원의 기금이 마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중일 기자

"한반도 평화 발원…적대행위 중단 돼야"

민추본 · 사노위, '평화기원법회'
갈등 멈추고 화해 대화 촉구

잇따른 대북전단과 오물풍선 살포, 대북 확성기 등으로 남북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공존과 화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특별한 법회가 열렸다.〈사진〉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태효 스님, 민추본)와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 사노위)는 6월 26일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한반도 전쟁위기 해소를 위한 평화기원법회'를 개최했다. 법회는 남북의 강대강 맞대응이 또 다른 갈등만 부추길 뿐 남북 관계 개선에 해법이 될 수 없음을 알리고, 군사충돌을 야기하는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추본 사무총장 덕유 스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은 멈춰야 하며, 접경지역 일대에서 충돌을 부추기는 모든 적대행위는 중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노위 스님들의 집전으로 한반도 평화의 염원을 모으는 다라니기도 3독에 이어 동참자들은 성명서에서 "우리 불자들은 평화와 화합을 위한 부처님의 실천행을 등불 삼아 앞으로도 평화의 외침을 확산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는 일에 계속 정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평화기원법회는 평화의 연등과 '갈등을 넘어 공존으로' '한반도에서 더 이상의 전쟁은 안 됩니다' '적대 멈추고 평화로'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종로 일대를 행진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김내영 기자

